

경제

■ 광주 투기과열지구 왜 해제해야 하는가

미분양 폭증... 건설사 잇단 부도...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와 관련, '광역시에 획일 적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광주·부산시 등의 건의를 정부가 묵살하자 지자체 및 경제계 관계자들은 "해제 당위성을 저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는 반응을 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획일적 정부 정책이 미분양 아파트 급증, 건설업체 부도 속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지정 해제의 당위성이 절대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와 광주상공회의소 등이 광주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잇달아 정부 기관에 보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광주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해온 광주시와 지역 건설업계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근 건교부가 광주와 부산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가 방침을 밝힌 이후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들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의 당위성을 피

수도권 집값 잡으려다 지방 경제 잡는 꼴

투기지역 아닌 곳이 과열...형평성 논란도

려하는 것은 우선 지난해 수도권 집값 급등을 겨냥한 정부 대책이 광주 등 지방 도시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둔 채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획일적'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광주는 지난해 집값이 3.2% 올라 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상인 서울(18.9%), 경기(24.8%) 등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광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 한 것이다.

게다가 광주는 지난해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

9천226가구로 급증하면서 사상 최악의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데다 지난 2003년 11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여곳이 넘는 지역 업체가 부도를 맞는 등 건설사의 경영난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중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와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남구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청약경쟁률이 2대 1 수준을 크게 밑돈 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1년새 6천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광산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광산구는 지난 2005년 6월 광주에서 유일하게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에 묶여 광주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다. 또 지난해 집값 상승률도 4.4%로 남구(5.0%)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최근 광주·부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정기적인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해제 요건을 갖춰더라도 부동산시장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세에 접어들기 전에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기는 하나 전체 일로에 있는 지방 주택·건설시장의 화급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은 여전하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가 사상 최고치 돌파

개미들은 되레 손실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집계한 '투자자별 매매수도 현황'에 따르면 개인은 증시가 반등을 시작한 지난 1일부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22일까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이 -0.24%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 8.06%에 크게 못미쳤다.

반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종목은 같은 기간 16.48%나 올라 지수 상승률의 2배를 넘었으며 기관도 수익률이 11.44%에 달해 역시 시장 평균을 초과했다.

또 같은 기간 개인이 순매도한 상위 10개 종목은 무려 18.15% 급등했으나 외국인 순매도 종목은 3.50% 오르는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기관이 매도한 종목도 6.13% 올랐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증시 상승기에 급등하는 종목을 대거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처분한 종목을 싸다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사들여 손실을 자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인은 매매 종목을 잘 선택, 수익률을 극대화했으며 기관은 수익률 관리에서 개인보다는 나았지만 외국인보다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기업 1만명 공채

올 상반기...적성검사 확대

대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 1만여명을 공개채용할 예정이며 채용규모를 늘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확정지으면서 해외인재 채용, 적성검사 확대 등 맞춤형 인재를 고르기 위한 경향이 강화되고 회화중심의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다음달 5일부터 대졸수준(3급) 신입사원 원서 접수에 들어간다. 삼성은 상반기에 3천500명을 뽑는 등 올해 모두 8천여명의 3급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4년 이후 4년째 국내 최대인 8천명 이상의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LG그룹은 전체 채용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자부문 2천여명(하반기 포함), 화학부문 100여명, IT부문 500여명 등 주요 계열사에서 2천9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올해 채용인원을 작년 200여명에서 350여명으로 확대해 오는 5월과 6월 사이에 대졸 신입사원 200여명을 뽑는다.

현대·기아차와 롯데그룹은 구체적인 채용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각각 오는 4월과 5월에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대졸 신입사원 400여명씩을 선발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업계는 상반기에 각각 150여명, 250여명, 300여명을 공채할 예정으로 3월~4월에 원서접수를 받는다.

신세계는 5월 중 그룹공채를 실시해 대졸 신입사원 150여명을 채용하고, 금호아시아나는 이미 상반기 공채를 통해 900여명을 뽑은 상태로 하반기에 4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서류 전형 후 1차 면접과 함께 한자검정능력 3급 정도의 한자시험을 본다. /연합뉴스

해외유학 석·박사 인재

현대·기아차 대거 공채

현대·기아차는 미국·유럽 등 해외 유망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석·박사급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차량기술, 선행개발, 파워트레인, 전자개발, 연구개발기획, 선행생산기술, 금형기술개발 등 이공계열과 경영전략, 상품전략, 자동차산업 연구 등 일반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채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십명 수준이며, 미국과 유럽의 정규대학 석·박사 학위자 및 2007년도 학위 취득 예정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또한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가운데 해외 자동차 관련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사원도 함께 채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올 임금인상률 2.4%

경총, 가이드라인 제시

재계가 25일 올해 사용자 측에 권고할 임금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2.4%로 제시하고 대졸 초임과 고임 대기업의 임금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한 '2007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리 기업의 대졸초임은 국민소득이 2배 높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대기업은 10% 이상 더 높은 실정"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졸 초임은 고임금을 견인하고 있고 신규채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제사업 비전 선포식... 농축산물 유통그룹 실...

농협 13조 투자

농축산물 유통 등에 2015년까지

농협중앙회가 2015년까지 13조원을 농축산물 유통 등의 경제사업에 투자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3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이연창 경제 대표이사와 경제부문 계열사 임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비전 선포문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질 농축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역할을 키우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적극 발굴, 경제사업의 자립 경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축산물 산지와 소비지 유통시장 내 점유율을 2015년까지 각각 60%,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아래 6조원을 농축산물 판매장 확충, 물류기지 건설 등에 투자하고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농산물 상품화, 수출확대 등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에도 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미 작년 6월 말 이런 내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신용·경제 분리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로도복권 (제221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Shows winning numbers and prize amounts.

팝콘복권 (제44회)

Table with columns: 순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Shows prize tiers and winning numbers.

주식 148%·서울 아파트값 52% 급등

참여정부 시대는 '자산 상승기'

참여정부 시대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대세 상승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최근 4년 동안 주식시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최대 호황을 구가했으며 서울지역의 아파트값도 50%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자산가격의 강세는 전세계적인 현상도 저급기 조와 경기회복이 맞물리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들쭉였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노 대통령 취임일인 2003년 2월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코스피지수는 592.25에서

1,469.88로 무려 148.19% 급등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가격도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31.8% 상승했으며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52.3% 급등했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유례 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집값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참여정부시대에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 부동자금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을 둔 자산가치 상승은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미국의 연방기 금리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0~1.25% 수준이었으며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도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블룸버그와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 말부터 작년 3.4분기 말까지 미국의 전국 주택가격은 29.1% 상승했으며 호주(28.8%)와 중국(29.7%) 등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4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과학 16→12위, 기술 27→6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 보고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과학부문 세계 16위, 기술부문 세계 27위에 그쳤으나 4년 만인 지난해에는 각각 12위, 6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다.

과학기술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기술 경쟁력은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R&D투자는 연평균 12.6%씩 증가해 국민의 정부시

절 연평균 11.2%를 앞질렀다. 2002년 18만9천888명이던 연구원수도 2005년에는 23만4천72명으로 23.3%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적·물적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GDP대비 R&D투자 비율은 2002년에 2.53% 수준에서 2005년 2.99%로 상승해 미국(2004년 2.68%), 일본(2004년 기준 3.13%), 독일(2004년 2.49%)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PCT 기준)는 2002년에 2천520건으로 세계 9위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5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table with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ists various job openings.